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80호 (2013-10) 발행일 : 2013. 03. 0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베이비붐 세대는 1963년부터 1955년생까지 9세 연령 집단이며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부모의 자녀인 1992년부터 1979년까지 14세 연령 집단을 말함

유명 연예인의 자살 직후 1개월간 자살자 수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는 1.33배, 에코 세대는 1.78배로 나타나 에코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에코 세대의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놓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기업차원의 정년 연장과 해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송태민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자살 특성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2003년부터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로 지정할 정도로 자살에 대한 관심도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자살률 12.8명에 비해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0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1.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노인자살률의 증가 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¹⁾
-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 및 유명인들의 자살과 대학생 및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안겨 주고 있음

1) 장영식(2012. 11. 23),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특성²⁾

○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분석결과, 2010년 11월 1일 현재 베이비부머(만 47~55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4,799만 명)의 14.5%, 에코 세대(만 18~31세)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로 두세대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활동해 오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도 없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조기 은퇴로 인해 직장을 물러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사회 · 환경적 여건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7.1%는 경제적 어려움(52.8%), 가정불화(18.0%), 외로움 · 고독(10.6%) 순으로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자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에코 세대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대학교 이상의 진학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보다 2.4배(28.7%) 높고,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음⁴⁾

- 에코 세대에 속하는 청소년의 8.8%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자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

· 15~19세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 가정불화(12.6%), 외로움 · 고독(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 직장문제(15.8%), 외로움 · 고독(15.4%)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정책

○ 2011년 3월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제정 · 시행하고 2012년 6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자살예방법 시행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인재 양성, 자살상담메뉴얼 개발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자살예방 관련 정부예산은 2010년 7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33.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2010년 자살예방예산(124억엔)의 1/200에 불과하며, 2012년 우리나라 흡연예방사업 예산(중앙정부 예산: 225.7억원)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정부의 자살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기에는 어려움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자살특성 통계분석 방법

○ 본 연구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자살특성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를 사용하여 세대별 분석을 실시함

2) 본 연구에서의 베이비붐 세대는 1963년생부터 1955년생까지 9세 연령집단을 말하며 에코 세대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자녀인 1992년생부터 1979년생 까지 14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통계청(2012. 8. 2. 보도자료).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의 인구 · 사회적 특성분석']

3)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4) 박덕배(한국경제, 2012. 6. 26). 에코 세대(27~33세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사회진입 적극지원.

5) 통계청(2012). 청소년 통계.

- 에코 세대는 2001년(9~22세)~2011년(19~32세)을 대상으로 하였고, 베이비붐 세대는 2001년(38~46세)~2011년(48~56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세대별 자살률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 10만명당 연도별 자살률을 산출함
-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영향 분석은 자살사망자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0일과 이후 30일간의 영향 분석을 실시함
 - '유명연예인의 자살 사건 후 사망한 월을 기준으로 이전 월과 이후 월에 대한 자살자 수의 증감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월 중순경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월 중순 이전과 이후의 자살자 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2.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자살특성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사망원인

○2011년 에코 세대의 사망구성비는 자살이 1위, 운수사고가 2위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악성신생물이 1위, 자살이 2위로 나타남

[그림 1] 2011년 에코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원인 구성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 자살자의 일반적인 특성

- 베이비붐 세대의 남자 자살사망자는 여자 자살사망자의 2.92배로 나타나 에코 세대의 1.21배, 전체 세대의 2.02배보다 높게 나타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는 매년 평균 2,204명(일평균 6.03명), 에코 세대는 1,411명(일평균 3.87명), 전체 세대는 12,045명(일평균 33명)씩 자살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자의 사망이 전체 세대에 비해 1.8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는 이혼자의 자살 사망이 높은 반면, 전체 세대는 사별자의 자살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에코 세대의 학생·가사·무직의 자살 사망이 베이비붐 세대나 전체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베이비 붐 세대와 에코 세대 자살자의 일반적인 특성(2001~2011년)

(단위: 명(%))

특성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전체 세대*
성별	남	18,059(74.5)	8,489(54.7)	88,576(66.9)
	여	6,181(25.5)	7,030(45.3)	43,918(33.1)
교육정도	초등학교 이하	5,807(24.3)	528(3.4)	45,103(34.4)
	중학교	5,694(23.8)	2,189(14.2)	21,880(16.7)
	고등학교	9,057(37.8)	7,630(49.5)	43,570(33.2)
	대학 이상	3,385(14.1)	5,054(32.8)	20,519(15.7)
혼인상태	미혼	3,403(14.1)	13,912(89.9)	33,652(25.6)
	유배우	14,587(60.6)	1,185(7.7)	64,263(48.9)
	이혼	5,215(21.7)	340(2.2)	15,096(11.5)
	사별	867(3.6)	38(0.2)	18,512(14.1)
직업	관리자	366(1.5)	61(0.4)	1,157(0.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47(5.1)	589(3.8)	4,608(3.5)
	사무종사자	1,538(6.3)	1,523(9.8)	7,342(5.5)
	서비스/판매 종사자	3,509(14.5)	1,113(7.2)	11,649(8.8)
	농림어업 종사자	1,928(8.0)	91(0.6)	13,108(9.9)
	기능원/기능 종사자	1,118(4.6)	246(1.6)	3,495(2.6)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629(2.6)	92(0.6)	1,852(1.4)
	단순노무 종사자	1,432(5.9)	244(1.6)	4,733(3.6)
	학생/가사/무직	11,784(48.6)	10,556(68.0)	80,425(60.7)
	미상(군인병사 제외)	689(2.8)	1,004(6.5)	4,125(3.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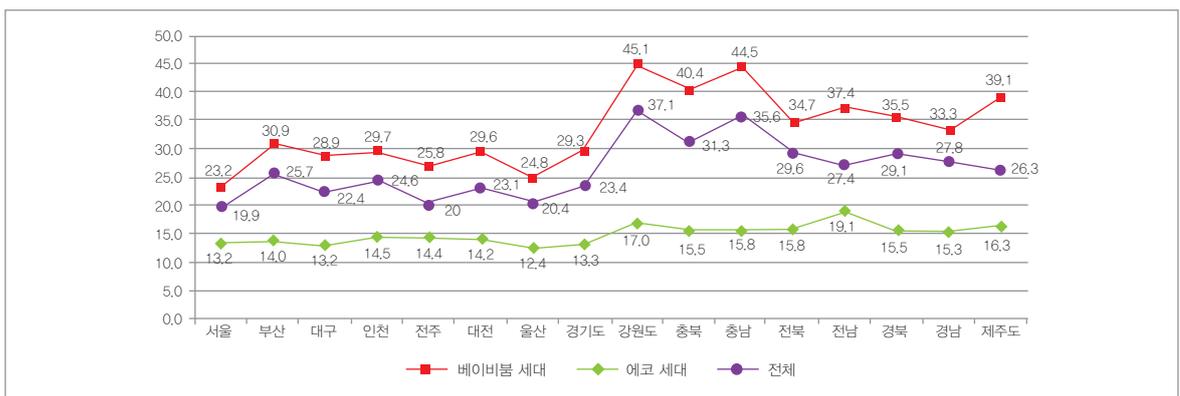
*: 전체 세대는 사망자 전 연령층을 나타냄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자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세대와 같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코 세대는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강원도(45.1), 충청남도(44.5), 충청북도(4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에코 세대는 전라남도(19.1), 강원도(17.0), 제주도(1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지역별 자살률 비교(2001~2011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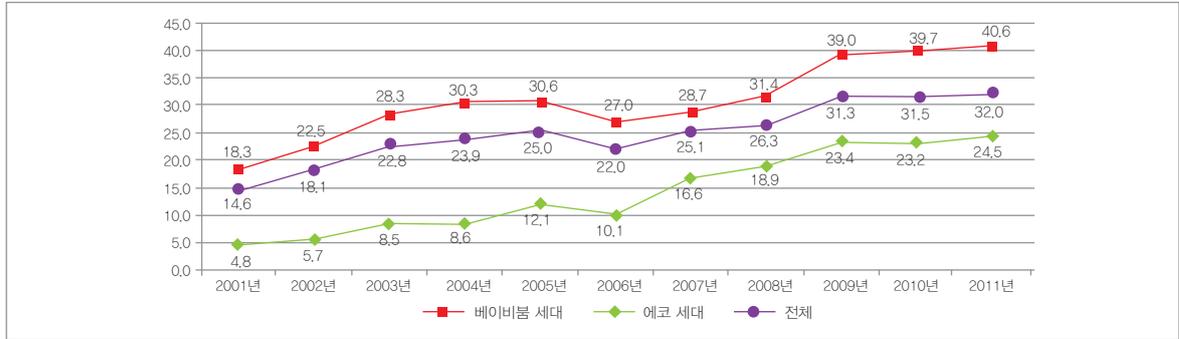
○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에코 세대는 2007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률이 증가하고 2006년부터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에코 세대는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와 생활고 및 취업난 등의 경제문제,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⁶⁾

[그림 3] 연도별 자살률 비교(2001~2011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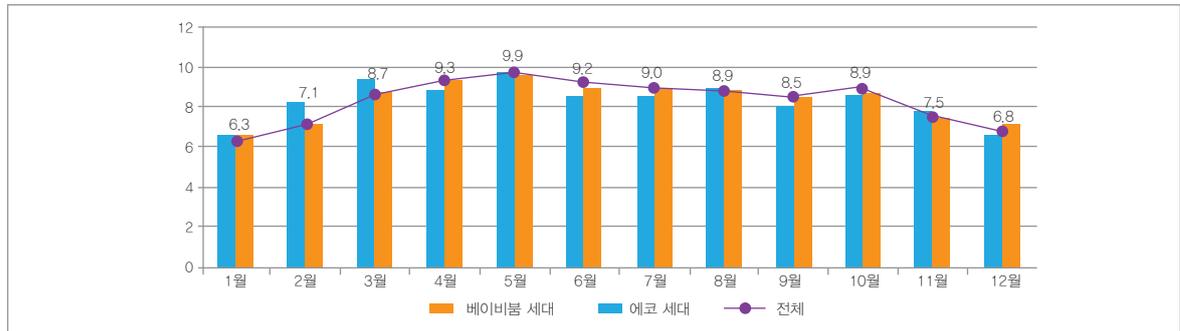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 월별 자살자 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에 자살자의 37%가 발생하며, 에코 세대는 3월과 5월 2개월 간에 자살자의 19.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세대에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5월에 자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월별 자살률 비교(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 요일별 자살자 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자살자의 30.8%가 발생하며, 에코 세대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자살자의 30.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요일별 자살자 수 구성비(2001~2011년)

사망요일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월요일	2,882(16.0)	943(15.3)	3,825(15.8)	1,314(15.5)	1,106(15.7)	2,420(15.6)	13,811(15.6)	6,757(15.4)	20,568(15.5)
화요일	2,786(15.4)	844(13.7)	3,630(15.0)	1,254(14.8)	985(14.0)	2,239(14.4)	13,482(15.2)	6,428(14.6)	19,910(15.0)
수요일	2,622(14.5)	897(14.5)	3,519(14.5)	1,234(14.5)	1,032(14.7)	2,266(14.6)	12,742(14.4)	6,379(14.5)	19,121(14.4)
목요일	2,598(14.4)	929(15.0)	3,527(14.6)	1,212(14.3)	1,041(14.7)	2,253(14.5)	12,700(14.3)	6,365(14.5)	19,065(14.4)
금요일	2,527(14.0)	902(14.6)	3,429(14.1)	1,181(13.9)	968(13.8)	2,149(13.8)	12,463(14.1)	6,194(14.1)	18,657(14.1)
토요일	2,239(12.4)	853(13.8)	3,092(12.8)	1,132(13.3)	950(13.5)	2,082(13.4)	11,514(13.0)	5,932(13.5)	17,446(13.2)
일요일	2,405(13.3)	813(13.2)	3,218(13.3)	1,162(13.7)	948(13.5)	2,110(13.6)	11,864(13.4)	5,863(13.3)	17,727(13.4)
계	18,059(100.0)	6,181(100.0)	24,240(100.0)	8,489(100.0)	7,030(100.0)	15,519(100.0)	88,576(100.0)	43,918(100.0)	132,494(100.0)

6) <http://ask.nate.com/qna/view.html?n=8975979>, <http://wbkn.tv/?bid=news&m=bbs&uid=2436>, 2007년 청소년백서(p242), <http://news.donga.com/3/all/20110217/34892179/1> 등

3.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 영향

■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 영향

-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1개월 간 자살자 수의 증가는 자살 직전 1개월 자살자 수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1.33배, 예코 세대는 1.78배, 전체 세대는 1.42배로 나타나 예코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예코 세대의 여성 자살자는 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 자살자도 1.7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1개월 이후 1개월간 자살자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는 1.18배, 예코 세대는 1.39배, 전체 세대에 1.26배로 나타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은 2개월 간 지속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0. 6. 22 자살사건 후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 자살자가 예코 세대의 여성 자살자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연령계층별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생의 잇따른 자살은 베이비붐 세대는 자살사건 직후 첫 달에 1.67배, 둘째 달에 1.75배 증가하였으며 예코 세대는 첫 달에 1.97배, 둘째 달에 1.94배로 증가하여 대학생의 잇따른 자살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자살사건은 베이비붐 세대나 예코 세대의 자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 자살 영향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 (자살일시)		남자					여자					전체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 (2005. 2. 22)	Echo ^a	30	82	64	2.73	2.13	31	104	84	3.35	2.71	61	186	148	3.05	2.43
	Baby ^b	126	185	155	1.47	1.23	31	50	51	1.61	1.65	157	235	206	1.50	1.31
	Total ^c	488	796	486	1.63	1.00	204	450	410	2.21	2.01	692	1246	1256	1.80	1.82
○○○ (2007. 2. 10)	Echo ^a	64	112	62	1.75	0.97	90	176	82	1.96	0.91	154	288	144	1.87	0.94
	Baby ^b	136	142	133	1.04	0.98	33	72	55	2.18	1.67	169	214	188	1.27	1.11
	Total ^c	563	743	691	1.32	1.23	356	583	283	1.64	0.79	919	1326	1074	1.44	1.17
○○○ (2008. 10. 2)	Echo ^a	84	126	107	1.50	1.27	73	185	114	2.53	1.56	157	311	221	1.98	1.41
	Baby ^b	144	182	181	1.26	1.26	56	108	59	1.93	1.05	200	290	240	1.45	1.20
	Total ^c	713	965	832	1.35	1.17	366	797	468	2.18	1.28	1079	1762	1300	1.63	1.20
○○○ (2010. 3. 29)	Echo ^a	82	113	133	1.38	1.62	80	114	114	1.43	1.43	162	227	247	1.40	1.52
	Baby ^b	156	210	200	1.35	1.28	67	84	69	1.25	1.03	223	294	269	1.32	1.21
	Total ^c	761	1005	1028	1.32	1.35	389	505	524	1.30	1.35	1150	1510	1552	1.31	1.35
○○○ (2010. 6. 30)	Echo ^a	107	142	136	1.33	1.27	71	112	92	1.58	1.30	178	254	228	1.43	1.28
	Baby ^b	188	189	183	1.01	0.97	38	77	68	2.03	1.79	226	266	251	1.18	1.11
	Total ^c	915	1046	928	1.14	1.01	463	538	471	1.16	1.02	1378	1584	1399	1.15	1.02
전체 ^d	Echo ^a	367	575	502	1.57	1.37	345	691	486	2.00	1.41	712	1266	988	1.78	1.39
	Baby ^b	750	908	852	1.21	1.14	225	391	302	1.74	1.34	975	1299	1154	1.33	1.18
	Total ^c	3440	4555	3965	1.32	1.15	1778	2873	2156	1.62	1.21	5218	7428	6581	1.42	1.26
○○○ 대학 ^e (2011. 3. 20)	Echo ^a	64	120	132	1.88	2.06	46	97	81	2.11	1.76	110	217	213	1.97	1.94
	Baby ^b	112	186	200	1.66	1.79	38	65	62	1.71	1.63	150	251	262	1.67	1.75
	Total ^c	546	934	1031	1.71	1.89	262	452	478	1.73	1.82	808	1386	1509	1.72	1.87
○○○ ^f (2009. 5. 23)	Echo ^a	113	118	110	1.04	0.97	119	115	104	0.97	0.87	232	233	214	1.00	0.92
	Baby ^b	186	227	204	1.22	1.10	69	68	66	0.99	0.96	255	295	270	1.16	1.06
	Total ^c	952	1027	936	1.08	0.98	549	571	533	1.04	0.97	1501	1578	1469	1.05	0.98
○○○ ^g (2010. 10. 7)	Echo ^a	104	114	84	1.10	0.81	71	78	57	1.10	0.80	175	192	141	1.10	0.81
	Baby ^b	176	166	170	0.94	0.97	53	64	67	1.21	1.26	229	230	237	1.00	1.03
	Total ^c	882	896	751	1.02	0.85	404	432	396	1.07	0.98	1286	1328	1147	1.03	0.89

1.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2.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다음날(사망일+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3.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1개월 후(사망일+3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4. ((사망일+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5. ((사망일+3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a. 예코 세대의 자살자 수
 b.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자 수
 c. 전체 자살자 수
 d. 유명연예인의 전체 자살
 e. 대학생의 자살, f. 유명정치인의 자살 g. 유명인의 자살

■ 유명 연예인 자살사건 전후 자살자의 사망원인

-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1개월 간 자살자의 사망원인 중 목메달림으로 인한 사망은 에코 세대는 2.2배, 베이비붐 세대는 1.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 여성 자살자의 목메달림으로 인한 사망은 1개월 후 2.57배, 2개월 후 1.68배 증가하였으며 에코 세대의 여성 자살자는 1개월 후 2.53배, 2개월 후 1.49배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여성 모방자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유명 연예인(전체) 자살사건 전 후 자살자의 사망원인

세대별 사망원인	남자					여자					전체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Echo ^a	살충제	15	23	15	1.53	1.00	12	6	17	0.50	1.42	27	29	32	1.07	1.19
	목메달림	197	358	276	1.82	1.40	223	565	333	2.53	1.49	420	923	609	2.20	1.45
	투신	76	93	97	1.22	1.28	80	75	85	0.94	1.06	156	168	182	1.08	1.17
	기타	79	101	115	1.28	1.46	30	45	51	1.50	1.70	109	146	166	1.34	1.52
Baby ^b	살충제	129	128	143	0.99	1.11	37	54	57	1.46	1.54	166	182	200	1.10	1.20
	목메달림	410	577	499	1.41	1.22	90	231	151	2.57	1.68	500	808	650	1.62	1.30
	투신	85	62	77	0.73	0.91	54	50	48	0.93	0.89	139	112	125	0.81	0.90
	기타	126	141	133	1.12	1.06	44	56	46	1.27	1.05	170	197	179	1.16	1.05
Total ^c	살충제	768	804	890	1.05	1.16	339	340	411	1.00	1.21	1107	1144	1301	1.03	1.18
	목메달림	1693	2718	2315	1.61	1.37	834	1907	1250	2.29	1.50	2527	4625	3565	1.83	1.41
	투신	420	413	461	0.98	1.10	373	352	350	0.94	0.94	793	765	811	0.96	1.02
	기타	559	620	659	1.11	1.18	232	274	245	1.18	1.06	791	894	904	1.13	1.14

1.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2.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다음날(사망일+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3.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1개월 후(사망일+3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4. ((사망일+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5. ((사망일+3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a. 에코세대의 자살자 수
 b.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자 수
 c. 전체 자살자 수

4. 정책제언

-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과 더불어 수립된 ‘자살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상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실시
 -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는 물론 정보제공을 위한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구축
 - 자살 징후를 발견한 후, 전문가에게 인계해 주는 전문상담인력(Gate Keeper)의 인재 양성
 - 장애가정이나 노인의 부양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베이비붐 세대 실직자에 대한 기업차원의 정년 연장과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 및 정부 차원의 사회 안정망 확충
 -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살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 모방자살(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
 - 많은 연구⁷⁾에서 미디어에 공개된 자살사건이 뒤따르는 자살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안하며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를 지시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살에 대한 자체적인 보도 권고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자살보도를 자제하고 보도 시 주위를 기울임으로써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는데 성공
 -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이를 시청하는 국민의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 언론, 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⁸⁾
- 자살예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자의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촉진하며,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살예방법의 포괄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직(가칭: 자살 예방사업지원단)의 운영 필요
 - ‘자살예방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크게 사업, 교육, 홍보, 제도개선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통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
-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65세에 진입, 에코세대는 30대 전후로 진입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및 20대, 30대 인구 자살률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계층 이동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 오프라인 조사 자료나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 · 저장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 적인 자살 요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 핀란드는 오프라인 빅 데이터(심리적 부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가능

7) Stack, S.(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등.

8) 김여라(2012. 11. 28).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집필자 | 송태민(통계정보연구실 연구위원), 진달래(통계정보연구실 연구원)
문의 | 02-388-179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